

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배우자 일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usal concordance for cardiovascular risk factors

박 현 정, 김 영 식*, 이 정 아, 선 우 성

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

목적 : 현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혈관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 심혈관 질환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,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있다.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,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22개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한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해 배우자간 일치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

방법 :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차의료에 내원한 40세 이상의 부부 520쌍의 단면 연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. 부부 중 어느 쪽에도 요인이 없는 경우, 한쪽에 요인이 있는 경우, 양쪽 모두에 요인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대해 배우자간에 군집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. 비만은 BMI가 25점 이상인 경우로, 우울증은 CES-D 척도를 사용하여 21점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였다. 음주는 K-AUDIT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남자는 8점 이상, 여자는 4점 이상인 경우 위험음주로 정의하였으며, 생활습관은 흡연, 음주, 신체활동, 불규칙한 식사 여부 및 아침결식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가기입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.

결과 : 군집분석 결과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비만, 우울증, 신체활동, 불규칙한 식생활 및 아침결식이 배우자간 유의하게 군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$P < 0.05$). 한쪽 배우자에게 심혈관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해당요인이 있을 가능성은 고혈압(OR2.04, 95%CI 1.33-3.13), 고지혈증(OR2.52, 95%CI 1.64-3.87), 비만(OR1.72, 95%CI 1.12-2.64), 우울증(OR3.79, 95%CI 1.76-8.19)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, 신체활동(OR2.43, 95%CI 1.50-3.94), 불규칙한 식생활(OR3.78, 95%CI 1.94-7.36), 아침결식(OR7.00, 95%CI 3.78-12.95)에서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.

결론 : 고혈압, 고지혈증, 비만, 우울증, 운동부족,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심혈관 위험요인의 경우 배우자간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도 함께 진료에 동참시키는 것이 권고된다.

중심단어 : 배우자, 부부, 심혈관 질환, 위험요인, 일치성, 생활습관

Key words : Spouse, couple, cardiovascular disease, risk factor, concordance, lifestyle